

(5) 겸천서원-겸천사(謙川祠)

조유(趙瑜)·조승문(趙崇文)·조철산(趙哲山) 등 옥천 조씨 3세의 충절을 기리고자 1706년에 호남사람들이 발의하여 1711년에 사우로 건립하였다. 건립 당시의 사정은 잘 알 수 없다. 그 후 언제부터인가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김종서(金宗瑞)·박중림(朴仲林)·박팽년(朴彭年) 등 순천을 관향으로 하는 사람들도 함께 배향하였다.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후 1920년에 옛터에 복구하였다가 1955년 새롭게 중건하였다. 아마도 이때에 이름을 겸천서원으로 바꾼 듯하다. 그 후 1975년에도 또 한 차례 중건을 하였다. 현재 주암면 죽림리 401번지에 있다.

조유(1346~1428)는 옥천 조씨의 순천 입향조이다. 자는 유옥(兪玉), 호는 건곡(虔谷), 옥천 부원군 원길(元吉)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하여 전농시부정에까지 올랐으나 조선 왕조가 개창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고향인 순창에 숨어 지냈다. 만년에 순천의 부유촌(현재의 주암면 일대)에 이거하여 옥천 조씨의 집성촌을 이룸으로써, 조씨가 순천지역 제1의 저성이 되게 하는 단서를 열었다.

조승문(?~1456)은 조유의 둘째 아들로 자는 무백(武伯), 호는 죽촌(竹村)이다. 세조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의 고모부이기도 하다. 세종 때 무과에 올라 함경도 병마절도사에 이르렀으나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아들 철산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후일 정조 때 충신의 정표를 명 받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조철산(?~1456)은 조승문의 아들로 자는 진경(鎭卿), 호는 구천(龜川)이다. 1456년 단종복위사건 때 아버지 승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김종서(1390~1453)는 세종과 단종 때의 재상이면서 명장으로 유명하다.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본관은 순천이다. 1405년(태종 5)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세종 때 육진의 개척 등에 큰 공을 세웠고, 『고려사』 편찬에도 관여하였다. 단종 즉위 후 어린 왕을 보위하다가 1453년(단종 1)에 수양대군에게 피살당하였다. 1746년(영조 22)에 신원, 복관되고 충익(忠翼)의 시호를 받았다.

박중림(?~1456)의 본관은 순천, 단종 때의 충신으로 호는 한석당(閑碩堂)이고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아버지이다. 1423년(세종 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에 들어가 성삼문·하위지 등 당대의 명인들을 문하에서 배출하였다.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아들 팽년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1784년(정조 8)에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문민(文愍)의 시호를 받았다.

박팽년(1417~1456)은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박중림의 아들이다.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醉琴軒)이다. 143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에서 학문 및 고제의 연구에 힘썼다. 1456년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아버지 중림을 비롯, 아우인 대년, 아들 현까지 일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충정(忠正)의 시호를 받았다.